

# 고진영 '최장기 세계랭킹 1위' 보인다

여자 골프 통산 158주 오초아와 타이 기록  
23일 개막 메이저 KPMG 챔피언십이 관전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인 고진영이 13년 묵은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세계랭킹 1위 최장 기록을 마침내 깬다.

한국여자 프로 골프의 에이스 고진영은 20일(한국시간)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통산 158주간 세계랭킹 1위를 지켜 여자골프 세계랭킹 최장기간 1위인 오초아와 타이 기록을 세웠다. 최근 4주 연속 1위다. 오초아는 2010년 4월 결혼과 동시에 은퇴했다.

2018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데뷔한 고진영은 이날 현재 평균랭킹 포인트 8.28을 기록, 허리 부상으로 약 1개월간 투어 활동을 중단했던 세계 2위 넬리 코르다(미국)에 0.68점 앞서 있다. 고진영은 올해 3월 HSBC 월드 챔피언십, 5월 파운더스컵 등 LPGA 투어에서 2차례 우승했고, 투어 통산으로는 15승을 달성했다. LPGA 태극상자들은 올시즌 고진영 외에 아무도 우승을 거두지 못했다.

고진영이 23일 열리는 LPGA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이 끝난 뒤에도 세계 1위를 유지하면 159주간 세계 1위가 되면서 오초아의

13년 묵은 대기록을 추월한다. 이번이 없이는 한 세계랭킹 1위를 지키는 것은 확실시 된다.

현재의 랭킹 점수 차이로 봐서는 고진영이 컷 탈락을 함과 동시에 코르다가 우승을 하지 않는 한 역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자 골프 세계랭킹은 2006년 처음 도입됐으며 오초아는 2007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3년 넘게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켜 158주간 1위 기록을 수립했다.

2019년 4월에 처음 세계 1위가 된 고진영은 이후 1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기를 몇 차례 반복하며 마침내 158주를 채웠다. 고진영의 연속 최장기간 1위 기록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려 100주다.

다만 고진영이 세계 1위였던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9주간 여자 골프 세계랭킹이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동결된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LPGA 투어가 이 기간을 합산해 “고진영이 총 158주간 세계 1위를 유지해 오초아의 기록과 같아졌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로 대회가 열리지 않아 세계랭킹에도 변화가 없었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이 멋진 드라이브 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고진영과 오초아 다음으로는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 고가 125주간 1위를 유지했다.

100주 이상 1위 선수는 고진영, 오초아, 리디아 고 외에 쟈니(대만·109주), 박인비(106주)까지 5명이다.

연속으로 최장기간 1위 기록은 오초아가 158주 연속, 쟈니가 109주 연속 1위를 유지했고, 고진영의 100주 연속이 그 다음이다.

한편 이번 주 세계랭킹에서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 공동 3위를 차지한 양

희영은 56위에서 45위로 11계단 올랐다. 이 대회 우승자 리오나 머과이어(아일랜드)는 20위에서 12위가 됐다. 고진영과 동갑내기인 김효주는 지난주와 같은 세계 7위에 올라 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 류현진 복귀 준비 '착착' 23일 라이브 피칭 나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튼 블루제이스의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이 투구 수를 늘리는 과정에 돌입했다. 이제 20일을 던진다. 실전 경기 등 판이 마지 않았다는 얘기가.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은 20일(한국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류현진은 23일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구단 스프링캠프 훈련시설에서 라이브 피칭(실전처럼 타자를 상대하는 훈련)을 2이닝 소화한다”고 전했다.

류현진은 이 훈련에서 최소 20개 이상의 공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1년간의 긴 재활 훈련을 거쳐 지난달 24일 불펜 투구를 하며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17일 더니든에서 라이브 피칭 1이닝을 소화했고, 훈련을 마친 뒤 구단에 “느낌이 좋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복귀를 향한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류현진은 23일 라이브 피칭을 무사히 소화하면 조만간 마이너리그 재활 등판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류현진은 수술 당시 7월 중순 복귀를 목표로 삼았다. 현재의 재활 속도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에이스 알렉 마노아가 전력에서 이탈한 토론토는 류현진의 복귀가 절실하다. 토론토는 현재 39승 34패 승률 0.534로 MLB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4위를 달리고 있다.

김명준 기자 mjkim@skyedaily.com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AFP=연합뉴스

## 김민규 최고 권위 한국 오픈 2연패 출격



김민규가 국내 최고 권위의 코오롱 제65회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총상금 14억 원)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김민규는 22일부터 나흘간 충남 천안의 우정힐스CC(파71·7328야드)에서 대한골프협회(KGA), 아시아 투어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는 한국오픈에서 이재경, 정찬민, 박상현, 서요섭, 김비오 등 국내 강자 및 아시아 강호들과 정상을 다툰다. 한국선수 60명, 아시아투어 소속 50명 등 총 144명이 출전한다. 우정힐스CC에서 20년째를 맞는 올해 한

### 페어웨이 폭 15m... 우정힐스CC 난도 더 높여

국오픈 우승자에게는 역대 최고 상금인 5억 원이 주어진다. 우승상금 5억 원은 한국 프로골프 대회 가운데 최고액이다. 총상금의 35.7%다.

우승자는 준우승자와 함께 다음달 영국 로열 리버풀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제151회 디오픈 챔피언십 출전권을 받게 된다.

김민규는 지난해 조민규와 공동 선두로 마친 뒤 3월 합산 연장전 끝에 생애 첫 우승을 거뒀고, 우승상금 4억5000만 원을 발판으로 시즌 상금랭킹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여름 교통사고를 당해 한동안 부진했던 김민규는 올 시즌 골프존 오픈 공동

3위를 비롯해 8차례 출전에서 5번 톱10에 오르는 꾸준한 성적으로 2015·2016년 챔피언 이경훈 이후 역대 7번째 대회 2연패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민규는 20일 발표한 조편성에서 2021년 우승자 이준석, 2018년 챔피언 최민철과 오전 11시 30분 1라운드를 시작한다.

대상트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을 제패한 이재경과 KGA 주최 메이저급 대회인 GS 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우승한 '괴력의 장타자' 정찬민, 제67회 KPGA 선수권대회 우승자 최승민 등도 우승후보로 거론된다. KPGA 스티븐스 투어(2부)에서 우승한

아시아게임 대표 장유빈도 주목할 만하다.

12, 13일 열린 최종예선을 통과한 김홍택, 김우현, 2017년 준우승자 김기환 등은 2018년 최민철과 같은 신데렐라 신화를 꿈꾼다. KPGA 선수권에서 62세 4일로 최고령 컷통과 기록을 세운 김종덕은 최상호의 한국오픈 최고령 컷통과(53세) 기록을 노린다.

KGA와 우정힐스CC는 이번 대회 난도를 높이기 위해 러프를 8.5cm~10cm 이상 길이로 기르고 페어웨이의 폭도 10~25m로 좁혔다. 대부분 파4홀 페어웨이 폭은 15m 안팎이다. 가뜰이나 난코스인 우정힐스CC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